

LG화학, 유럽에 ESS용 배터리 공급

SMA에 2kWh급 공급 계약 ... 수주액은 판매량 따라 500억-1000억원

LG화학(대표 박진수)이 독일 SMA의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(ESS: Energy Storage System)에 탑재할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7월14일 밝혔다.

ESS는 남은 전력을 저장한 후 필요할 때 해당장소로 전송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핵심장치로, LG화학은 7월부터 충북 오창공장에서 개당 2kWh급 배터리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.

수주액은 ESS 판매량에 따라 500억-1000억원 사이로 알려졌다.

LG화학은 SMA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벽걸이형 ESS 개발에도 동참한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13/07/15>